동의신경정신과 학회지
J. of Oriental Neuropsychiatry
Vol. 18. No. 3, 2007

최근 10년간 痴呆에 대한 한의학적 연구 동향 고찰

류기준, 김지형, 안건상, 이제균, 권승로
자생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

A Review of Dementia in Korean Medicine during the last ten years

Ki-Jun Ryu, Ji-Hyung Kim, Keon-Sang An, Je-Kyun Lee, Seung-Ro Kwon
Dept. of Oriental Neuropsychiatry, Jaseng Oriental Medicine Hospital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dicate further research direction in **dementia by examining recent Korean-medicine journals.**

Method: We have reviewed eleven different journals that have been published from 1997 to 2006.

Result

1.In philological study paper, cerebrovascular dementia is most common type of dementia and age, sex, past history have influence on the attack of disease.

Introduced medical treatment to dementia of Korean medicine are Removing wind(祛風), Be in the peace(安神), Refreshing lung and raising blood(淸肺養血) etc.

2.According to the research paper, a prognosis of dementia which Is mixed(Alzheimer type and cerebrovascular type) is bad.

Sinmac(申脈-BL.62), Jeohae(照海-KI.06), waegwan(外關-TE.05), naegwan(內關 -PC.6) among the palmacgyohoeheol(八脈交會穴) have good effect in medical treatment. Medical treatment which is based on chaejil(體質) shows up to be more effective. Also many medicines have good effect, especially chongmyung-tang(聰明湯) and chongmyung-tang-gamibang(聰明湯加味方) have good effect on decreasing memory caused by nerve cell degeneration.

Conclusion: The Korean medical treatments have many advantage in taking the dementia so the researches about this are more needed.

Key Words:Cerebrovascular dementia, Removing wind (祛風), Be in the peace(安神), Refreshing lung and raising blood(淸肺養血), palmacgyohoeheol(八脈交會穴), chaejil(體質)

투고일 : 6/8 수정일 : 11/4 채택일 : 11/7
교신저자: 류기준,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35 자생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
Tel: 02-3218-2000, Fax: 02-3445-6644, E-mail: temuchin0811@hanmail.net

Ⅰ.서 론

생활수준의 向上과 醫學의 발달 등 의로 인간의 壽命이 연장되어 노년층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노년층의 대표적인 질환인 痴呆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 되고 있다. 痴呆란 의식이 청명한 상태에서 전반적인 인지 기능의 장애를 나타내는 질환으로[1] 원인 질환에 따라 노인성 痴呆(Alzheimer 痴呆), 혈관성 痴呆, 속발성 痴呆로 분류할 수 있다[2]. Alzheimer痴呆는 정확한 원인 치료 없이 단지 對症治療만을 시행하고 있으며 치료 불가능한 痴呆로 분류되고[3] 혈관성痴呆와 속발성痴呆는 치료 가능한 痴呆로 분류된다. 痴呆를 야기하는 질환으로는 腦의 萎縮性 變化, 腦血管障碍, 腦의 炎症性 障碍, 代謝性 疾患, 內分泌 疾患, 腫瘍, 外傷, 中毒 등 다양하나 현재까지 그 확실한 원인 및 발병 기전이 밝혀지지 않은 실정이다[1].

韓醫學에서 痴呆라는 용어는 張景岳의 「景岳全書」에서 처음 언급된 이후 痴呆, 狂病, 健忘, 虛勞등의 범주에서 다루어 졌으며, 病因病理는 先天稟賦不足과 後天調理失養으로 인한 인체의 생리적 작용이 저하되어 두뇌로의 영양공급이 저하된 本虛證(髓海不足・肝腎精虧・脾腎陽虛)의 바탕 위에 火・痰・瘀가 위로 淸竅・腦絡의 정신기능을 손상시키는 標實證(瘀血內阻・痰濁阻竅・心肝火盛)의 挾雜에 의하여 발생 한다[2]. 이처럼 커져가는 '痴呆'에 대한 관심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1997년부터 2006년까지 국내 한방관련 논문중 痴呆 관련 제시어 '치매, 알츠하이머(Alzheimer), 혈관성, Dementia, CT-105, CT-99,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Ach E)'로 분석하여, 痴呆에 대한 최근 연구 동향을 파악함과 동시에 향후 痴呆 관련 연구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Ⅱ.본 론

학위 논문 및 12개 저널에서 痴呆와 관련된 논문 총 79편을 검색 하였다.

1.게재된 논문 및 편수

학위논문 25편, 동의 신경정신과 학회지에서 17편, 대한 한방내과학회지에서 9편, 동의병리학회지 6편, 대한 침구학회지 5편, 대전대 논문집 4편, 대한 한의학 방제학회지 3편, 한방재활의학회지와 대한 한의학 회지, 제한 동의학술원 논문집, 대한 본초 학회지 각2편, 원광대 논문집과 한의학 연구원 논문집에 각1편이 검색 되었다.

2.연구 형태

고찰 논문이 21편, 임상 연구 논문이 7편, 실험 논문이 46편 증례보고 5편이었다.

3.고찰 논문

임상적 고찰 5편	1.痴呆 患者 17例에 대한 임상적 고찰4)
	2.痴呆 患者 43例에 대한 유형별 임상고찰5)
	3.痴呆 患者 84例에 대한 유형별 임상고찰6)
	4.痴呆 患者 32例에 대한 임상적 고찰7)
	5.Alzheimer型 痴呆患者 2例에 對한 臨床的 考察8)

기타 고찰 16편	1.중의 잡지에 보고된 Alzheimer형 痴呆에 대한 고찰9)
	2.중의 잡지에 보고된 뇌혈관성 痴呆에 대한 고찰10)
	3.痴呆의 원인 및 치법에 대한 연구11)
	4.노인성 痴呆의 중의임상 진단·치료에 대한 고찰12)
	5.치매의 병리에 대한 동 서의학적 고찰13)
	6.노인 痴呆의 치료에 관한 한의학적 연구14)
	7.뇌혈관성 痴呆에 대한 동서 의학적 고찰15)
	8.痴呆에 대한 文獻的 考察16)
	9.痴呆에 대한 문헌적 고찰17)
	10.痴呆에 대한 문헌적 고찰18)
	11.痴呆에 대한 東西醫學의 文獻的 考察19)
	12.痴呆에 應用된 六味地黃湯加減方에 대한 文獻的 考察20)
	13.痴呆의 病理와 鍼灸治療에 대한 文獻的 考察21)
	14.痴呆의 최근 연구 동향22)
	15.痴呆 治療의 最近 硏究動向에 關한 考察23)
	16.痴呆에 관한 최근의 연구 동향24)

4.임상 연구 논문

한의학적 연구 3편	1.痴呆에 대한 한의학적 임상연구25) 2.Dementia of Alzheimer Type에 關한 한의학적 임상연구26) 3.Vascular Dementia 에 關한 韓醫學的 臨床硏究27)

질병 검사에 대한연구1편	1.痴呆 선별 검사로서의 시계 그리기 검사(CDT)에 관한 기초 연구28)

임상적 관찰 3편	1.中風患者의 血管性痴呆에 대한 臨床的 觀察29) 2.신맥 조해의 전침 자극이 痴呆 환자의 뇌파에 미치는 영향30) 3.전침 자극이 치매환자의 뇌파에 미치는 영향 : 정보전달 모드도해 분석법 을 중심으로31)

5.실험 논문

침구 자극의 영향관련2편	1.痴呆와 관련된 뇌영역에 투사되는 경혈(외관(SJ5),내관(Pe6),삼음교(SP6) 및 현종(GB9))의 탐색에 관한 신경해부학적 연구32) 2.鍼灸刺戟이 痴呆와 關聯된 Melatonin 分泌와 SOD 合成에 미치는 影響33)

약물의 영향 관련 44편	1.補益淸腦湯이 痴呆病態 모델에 미치는 影響34) 2.加減固本丸이 痴呆病態 모델에 미치는 影響35) 3.天王補心丹이 痴呆病態 모델에 미치는 影響36) 4.半夏白朮天麻湯이 局所 腦虛血로 因한 痴呆 병태 白鼠에 미치는 影響37) 5.牛黃淸心元이 NOS inhibitor에 의한 흰쥐의 學習 및 記憶障碍에 미치는 影響38) 6.益精地黃湯이 痴呆 병태모델에 미치는 影響39) 7.補陽還五湯의 痴呆 抑制 效果에 對한 硏究40) 8.開心散 加味方과 구성 약물의 아세틸콜린에스터레이즈 酵素活性에 대한 효과41) 9.태봉음이 콜린성 신경세포손상 백서의 학습 및 기억에 미치는 영향42) 10.蓼茸地黃湯이 腦組織의 酸化作用에 미치는 影響43) 11.安神淸腦湯이 알츠하이머질환 병태 모델의 생화학적 변화 및 기억에 미치는 영향44) 12.녹용 성분 중 Acetylcholinesterase 저해제의 정제 및 구조 분석45) 13.聰明湯과 山査聰明湯이 Alzheimer's Disease 病態 모델에 미치는 影響46) 14.聰明湯과 木槿皮聰明湯이 CT105와 βA로 유도된 Alzheimer's disease 病態 모델에 미치는 영향47) 15.星香正氣散이 NOS Inhibitor 投與에 의한 흰쥐의 學習 및 記憶障碍에 미치는 影響48) 16.L-NAME으로 誘發된 학습 · 기억 장애와 腦虛血 損傷에 關한 大造丸의 效果49) 17.香附子八物湯이 흰쥐의 방사형 迷路學習과 記憶에 미치는 影響50) 18.六味地黃湯이 局所腦虛血로 유발된 記憶力損傷 白鼠에 미치는 影響51) 19.香附子가 痴呆病態 모델에 미치는 影響52) 20.巴戟天이 痴呆病態 모델에 미치는 影響53) 21.柏子仁의 抗癡呆性 活性에 關한 硏究54) 22.菟絲子의 Acetylcholineesterase 저해 활성에 관한 연구55) 23.日黃蓮이 痴呆에 미치는 實驗的 硏究56) 24.항치매 약효를 나타내는 천연물의 의약 화학적 연구57) 25.한약물의 치매치료에 관한 실험적 연구58) 26.가미신선불노단이 ibotenic acid 손상에 의해 유도된 치매 백서의 학습 및 기억장애에 미치는 영향59) 27.치매음이 해마손상 백서의 기억기능 회복에 미치는 영향60) 28.조구등이 ßAPP 과 발현 인간 신경 아세포암에서의 항치매 효과에 관한 연구61) 29.한약재 물 추출물의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 활성억제 검색62) 30.數 種 韓藥의 아세틸콜린에스터레이즈 酵素活性에 대한 효과63) 31.苦蔘의 Acetylcholinesterase 活性 抑制 成分64) 32.紫花魚燈草 및 五倍子의 Acetylcholinesterase 活性 抑制 成分65) 33.補益藥이 神經細胞主의 成長·分化 및 細胞死滅(Apoposis)에 미치는 影響 :麥門冬이 細胞死滅에 미치는 影響66) 34.CT99 발현 PC12 세포주에서 가감고본환의 신경보호 및 항치매 효과67) 35.CT99 발현 신경 세포주에서 益氣安神湯의 신경보호 및 항치매 효과68) 36.CT105로 유도된 신경모세포종 세포주에서 洗心湯의 항치매 효과69) 37.CT105로 유도된 인간신경아세종 세포주에서 轉呆丹의 항치매 효과70) 38.산화적 손상에 의한 Neuro 2A 치매모델에서 石菖浦遠志散의 방어효과71) 39.CT105로 유도된 신경모세종 세포주에서 指迷湯의 항치매효과72) 40.pCT105로 유도된 치매모델에서 石菖浦水抽出液이 미치는 영향73) 41.木瓜가 CT105와 βA로 誘導된 Alzheimer's Disease 病態 모델에 미치는 影響74) 42.木槿皮가 CT105와 βA로 유도된 Alzheimer's Disease 病態 모델에 미치는 影響75) 43.녹용 성분 중 Acetylcholinesterase 저해제의 정제 및 구조 분석76) 44.녹용의 Acetylcholinesterase 활성 저해 성분의 정제 및 구조분석77)

6.증례보고

증례보고 5편	1.저산소증으로 유발된 다발성경색치매의증 환자의 三黃瀉心湯을 이용한 증 례78) 2.알츠하이머형 痴呆 환자에 대한 調胃升淸湯의 효능79) 3.拱辰丹이 알츠하이머형 痴呆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80) 4.초기 알츠하이머형 痴呆 환자에 대한 健腦湯의 효능-12개월 임상 연구-81) 5.혈관성 痴呆와 속발성 痴呆 치험 및 호전 3례82)

Ⅲ. 고 찰

1.고찰 논문 분석

임상적 고찰에서는 환자의 例에 따른 임상적인 고찰이 5편[4-8]이었고, 기타 고찰로는 중의 잡지에 보고된 Alzheimer형 痴呆에 대한 고찰과, 뇌혈관성 痴呆에 대한 고찰 각1편[9)10)],痴呆의 원인 및 치법, 병리에 관한 논문이 각 1편[11),13)], 노인성 痴呆의 중의 임상 진단 치료에 관한 논문과 한의학적 연구에 관한 논문이 각 1편[12),14)], 뇌혈관성 痴呆에 대한 동서 의학적 고찰이 1편[15)],痴呆 관련 문헌적 고찰이 5편[16-21)], 痴呆의 연구 동향에 관한 논문이 3편[22-24)] 으로 조사 되었다.

痴呆관련 5편의 임상적 분석을 살펴보면 첫째,Vascular score 上 腦血管性 痴呆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混合型과 Alzheimer型의 경우는 연구자에 따라 비율의 순서에 차이가 있었다[4-7]. 둘째, 年齡別 分布는 70代가 가장 많았으며, 성별의 차이의 경우 여자가 남자에 비해 현저히 많았다[4-7]. 셋째, 음주 및 흡연을 함께 한 사람의 경우 음주나 흡연 한가지 만 한 경우보다 발병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5-7]. 넷째, 신체 증상의 경우 偏痲痺가 가장 많았고 대소변장애가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5),6)]. 다섯째, 컴퓨터 뇌 단층 촬영상 뇌혈관성 치매의 경우 뇌경색이 뇌출혈 경우보다 많았으며, Alzheimer형 경우 뇌 위축이 뇌 허혈보다 약간 많은 수를 차지했다[5-7]. 여섯째, 한방적 변증 유형을 살펴보면 뇌혈관성 치매의 경우 痰濁阻竅가 수위를 차지했고 Alzheimer형의 경우 肝腎陰虛유형이 가장 많았다[5),6)]. 일곱번째, 血中 脂質濃度 分布에 있어서는 Total cholesterol과 Triglyceride 모드 痴呆와의 相關性을 나타내지 못하였다[5-7]. 여덟째, MMSE-K 검사상에서 腦血管性 과 Alzheimer 型 痴呆 모두 輕症痴呆가 더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항목별로는 記名力, 言語力은 좋은 점수를 받았으나 推理力, 記憶力, 構成力은 다른 항목에 비해 더욱 현저히 저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4-7]. 아홉 번째, EVA 검사상 으로는 저하-변성화 수준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6)]. 열 번째, 효과 판정에 있어서는 신체증상, 정신증상 모두의 경우 別無變化, 良好, 優秀 순이었으며, 악화되는 例는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4-7].

기타 고찰관련 논문을 살펴보면 최근 중국은 DSM이나 MMSE, CT나 MRI등 양방적 진단 기준을 바탕으로 한방적 변증과 치료법을 연구해 나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9),10)]. 또 치매의 경우 양방적 으로는 뇌에서 대뇌피질의 위축, 부교감신경과 다른 신경 세포의 퇴화, neurofibrillary tangles(신경원 섬유 농축제, NFTs)의 존재,senile plaque(노인반)의 축적과 같은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며[13)], 한방적으로는 腎은 骨을 주관하여 髓를 生하고 腦는 髓海가 되는데 腎의 精氣不足으로 髓가 뇌에 상충하지 못하여 髓海가 부족하게 되면 건망과 지능 감퇴, 기교의 현저한 감퇴가 있다고 본다[11)]. 증상으로는 구음장애, 보행부전, 편마비, 지각장애

등의 병소 증상이 정신증상과 더불어 출현 하며,정신증상은 기억장애가 심한 반면 이해력, 판단력은 대체로 유지되며, 본래의 인격은 말기까지 보존되는 것이 보통이다. 또 병전 성격이 첨예화되고 감정실금이 보이는 것이 특징이며, 증상은 단계적으로 악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15]. 痴呆의 치법은 원인에 따라 祛風, 安神, 淸肺養血, 安心養神,하는 八風散,排風散,辰砂安神丸,瀉白散,羌活愈風散,牛黃淸心丸 등이활용 됐으며 최근 중국에서는 補腎益氣化瘀通滯하는 補腎益氣活血湯, 化痰祛瘀하는 保呆湯, 補腎精위주로 化瘀通絡爲補하는 補身益腦湯, 淸熱化痰 開竅通絡하는 청개영주사액 등과함께 심리요법 지력조련 음악요법 등을 병행하였다[15]. 痴呆관련 문헌 고찰[16-21]을 통해서 痴呆의 정의와 원인(思慮過多, 憤怒로 인한 七情內傷과 腎精不足, 痰迷心竅 등) 증상 치법 등을 제시하였으며, 痴呆에 六味地黃湯加減方을 이용하여 先天不足, 肝腎虧虛,脾腎兩虛 등의 腎精不足으로 인한 痴呆에 응용된 경우도 찾아볼 수 있었다[20].

2.임상연구 논문 분석

임상적 연구에 대한 논문으로는 痴呆에 대해 전반적인 분류, 예후, 문제점이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한의학적 임상연구에 관한 논문[25] 1편, 痴呆중 Alzheimer type에 관한 임상연구 1편[26], Vascular type에 관한 임상연구 1편[27], 痴呆검사중 시계 그리기 검사에 관한 논문[28] 1편, 중풍 환자중 혈관성 痴呆환자에 관한 임상적 관찰 논문[29] 1편, 전침 자극이 환자의 뇌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 2편[30][31]이 있었다.

痴呆에 대한 한의학적 임상연구를 보면 혈관성 痴呆 11例중 7例는 2-3개월, 1例는 5개월 사이에 거의 정상 상태로 회복 되었으며, 2例는 1년 이상 치료 후 정상 상태에 가까워 진 것으로 보고되어 졌으며, Alzheimer형의 경우 전 痴呆(초기) 2例는 2개월 전후해서 거의 정상 상태로 회복 되었으며, 경증痴呆(중기) 4例중 2例는 2개월 전후해서 상당한 호전을 보였으며, 3-5개월 사이에 거의 정상 상태로 회복 되어 지고, 나머지 2例는 경미한 호전만을 보이는 상태, 중증 痴呆(말기)의 경우 증상이 진행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Alzheimer형과 혈관성 痴呆 모두 동반된 경우에는 6개월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효과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5]. 이는 Alzheimer형이나 혈관성 痴呆에서 대부분 환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주목 할만한 회복이 되었으나 치료기간은 痴呆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두 가지 유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치료에 어려움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또 痴呆중 Alzheimer type에 있어서 약물치료나 침 치료를 해나갈수록 사상체질에 따른 구분이 명확해짐을 알 수 있었고[26], Vascular type에 있어서는 일찍 치료를 시작할수록 증상이 가벼울수록 치료 효과가 뛰어남을 알 수 있었다[27].

痴呆선별 검사로서의 시계 그리기 검사(CDT)관련 논문의 경우[28] 痴呆 선별 검사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 MMSE-K의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시계 그리기 검사를 제시 하고 있으나 아직 학력 등의 영향이 의심되어 더 많은 보충 연구가 필요함을 나타내었다. 뿐만 아니라 痴呆를 선별하는 검사의 다양화도 필요하리라 사료 된다.

경혈점 자극의 경우 申脈, 照海의 전침 자극이 痴呆患者의 腦機能에 유의한 변화를 나타냈으며[30], 정보이동 모드에 있어서도 정보 전달이 활성화됨을 볼 수 있었다[31]. 혈관성 痴呆 환자의 경우에는 교육수준 및 일상 생활 수행 능력이 낮음을 알 수 있었고 뇌경색 환자가 뇌출혈 환자 보다 많음을 알 수 있었다[29]. 이는 痴呆

환자수의 증가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며, 뇌경색의 유발 요인과 痴呆의 유발 요인 간의 상호 유사성이나 연관성에 대해서도 연구해 볼 만한 의미를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겠다.

3.실험논문 분석

실험 논문을 분석 해보면 痴呆관련 특정 세포나 분비 물질에 대해, 침 자극이나 약물들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이 대부분을 차지 하였다. 침구 자극이 痴呆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문 2편[32)33)], 특정 약물이 痴呆와 관련하여 나타내는 연구 논문이 44편[34-77)] 이었다.

침구 자극과 관련된 논문에서는 경혈(外關, 內關, 三陰交 및 懸宗)중 外關 內關을 자극 했을 경우에는 痴呆와 관련된 뇌 영역에 자극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32)]. 또 침구 자극이 혈위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有害라디칼의 作用을 抑制하며, 老化를 防止하고 免疫力을 增加시킨다고 報告된 melatonin과 活性 酸素를 제거 시켜 주고, 老化와 痴呆를 억제 시켜주는 것으로 알려진 SOD 生成은 鍼灸刺戟에 의하여 促進 됨을 보고하고 있다[33)]. 특정 약물 관련 논문을 살펴보면 補益淸腦湯, 加減固本丹, 天王補心丹, 半夏白朮天麻湯, 牛黃淸心元, 益精地黃湯, 補陽還五湯, 開心散, 태봉음, 蓼茸地黃湯, 安神淸腦湯, 香附子八物湯, 六味地黃湯, 香附子, 巴戟天, 柏子仁, 菟絲子, 日黃連, 苦蔘, 紫花魚燈草, 麥門冬 등의 경우 PC-12cell의 APP, PS-1, PS-2, AChE 등의 痴呆 관련 물질의 억제에 유효한 작용이 있음이 나타났다[34-44),50-68)]. 특히 半夏白朮天麻湯은 痰濁停滯로인한 痴呆에 유의한 반응을 보였고[37)],牛黃淸心元의 경우 뇌허혈 후에 나타나는 혈관성 치매의 치료제로 효과가 있음을 나타냈다[38)]. 聰明湯 및 香附子聰明湯은 microglial celle등의 염증 반응, cytokine의 과잉발현 등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痴呆와 choline성 신경세포의 퇴화에 의해 야기 되는 기억력 감퇴에 유의성을 나타내어 기억력감퇴에 대한 예방약으로의 가능성을 보였다[45)]. 山査聰明湯 및 木槿皮聰明湯의 경우 聰明湯과 비슷하지만 좀더 양호한 효과를 보였다[46),47)]. 星香正氣散의 경우 NOS Inhibitor로 인한 학습 및 기억장애에 효과를 보였고[48)], 大造丸의 경우 혈관성 치매에 있어 임상적 치료 및 예방에 활용 가능성을 보였다[49)]. 항치매 효과를 나타내는 약물에 대한 화학적 연구에서는 단삼, 치자, 적하수오, 부자, 계피, 황백, 맥문동, 마황, 대황, 천궁 등을 치매 치료의 후보 물질로 제시하였다. 특히 오수유 및 복분자의 경우 AchE저해 활성을 가지며 CEF(cerebral blood flow)활성을 증대시키는 활성에 의해 Alzheimer성 치매와 뇌혈관성 치매에 있어서 주목을 끌었고, 현호색 으로 부터 얻은 알칼로이드인 Propine 1은 AchE 저해 효능이 tacrine 유도체인 velnacrine과 거의 대등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을 나타냈다[57),62-63)]. 가미신선불노단의 경우 cholinergic damage에 의한 학습 및 기억능력을 향상 시키는데 유의성이 있음[59)]을 알 수 있고, 치매음은 공간 학습능력 및 기억 능력 측정 손상을 유의성 있게 회복 시켰다[60)]. 또 조구등의 경우 痴呆의 원인 인자인 신경세포의 ßAPP 과 발현을 통한 신경아세포암 세포주에서 세포사 유도에 뚜렷한 억제 효과를 보였으며[61)], 가감고본환과 益氣安神湯의 경우 CT99 발현 세포주를 이용하여 痴呆와 동일한 신경세포사를 유도한 실험에서 신경세포의 세포사를 감소 시키고 신경 세포의 생존율을 유의성 있게 감소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67),68)]. 洗心湯과 指迷湯 의 경우 CT105 과 발현에 의한 신경모세포종 세포주의 세포 자멸사를 유의성 있게 감소 시켰으며, 세포 생존율을 증가 시켰으며[69),72)], 轉呆丹의 경우는 CT105 과발현에 의한

신경아세포종 세포주의 세포 자멸사를 유의성 있게 감소 시켰다[70]. 石菖浦단일 약재의 경우 단독 투여가 pCT105 과 발현 신경 아 세포암 세포주 에서 세포사 유도에 대한 뚜렷한 억제 효과를 보여 腦의 퇴행성 변화를 지연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지며[73], 木瓜와 木槿皮의 경우 CT105와 βA로 유발된 Alzheimer type에 유의한 효과를 보여 주었다.[74),75] 石菖浦遠志散의 경우에는 베타 아밀로이드에 의해 생성된 H2O2에 의한 산화적 손상으로부터 Neuro 2A 신경아종 세포를 방어 하는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Alzheimer병 등의 퇴행성 신경 질환에 유효할 것으로 예측 할 수 있었다[71]. 이는 한방 치료를 통해 痴呆로 인한 많은 사회적 기회 비용을 줄여 나갈 수 있음을 제시해준다고 볼 수 있겠다.

4. 증례보고

증례보고와 관련된 논문에는 痴呆의 모델에 대한 여러 가지 약물의 효능을 알아본 논문[78-82] 4편, 혈관성 痴呆와 속발성 痴呆 환자에 대해 체질 변증 치료를 하였을 경우에 대한 논문[82] 1편이 있었다. 痴呆의 병태 모델에 대한 여러 가지 약물의 효능을 알아본 논문[78-81]의 경우 기억력 저하, 착란, 불면을 주소로 하는 저산소성 다발성 경색의 痴呆의증 환자를 삼황사심탕가미방으로 치료한 결과 지남력과 집중력이 향상되었으며[78], Alzheimer형 환자의 경우 調胃升清湯과 健腦湯의 경우 초기DAT(Dementia of Alzheimer Type)의 환자들에 있어 인지 기능의 저하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79),82], 공진단 역시 Alzheimer형 환자의 인지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80]. 또 혈관성 痴呆 및 속발성 痴呆(CO 중독, 뇌외상성 뇌출혈)환자를 『東醫壽世保元』에 입각한 體質 辨證및 치료로 상당한 효과가 있음도 알 수 있었다[82].

Ⅳ.결 론

1997년부터 2006년까지 국내의 痴呆관련 논문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고찰 논문을 통해서 痴呆의 경우 뇌혈관성 치매의 비율이 높았고, 나이와 성별 과거력이 발병에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痴呆의 한방적인 치법으로 祛風, 安神, 淸肺養血, 安心養神 등이 제시 되었다.

2.임상연구 논문의 경우 痴呆의 예후에 있어 Alzheimer형과 혈관성 痴呆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예후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 주었고, 八脈交會穴중 申脈, 照海外關, 內關의 경우 痴呆관련 치료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다른 여러 방법의 경우에서 보다 體質 辨證에 따른 치료가 상당한 효과가 있음도 알 수 있었다.

3.실험 논문에 있어서는 여러 약물이 痴呆관련 물질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고, 특히 聰明湯 및 香附子聰明湯의 경우 신경세포의 퇴화에 의해 야기 되는 기억력 감퇴에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이상에서 최근 痴呆의 연구 동향은 痴呆관련 치료뿐 아니라 검사 방법이나 예방에 대한 쪽에도 관심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상태로써, 앞으로의 연구 방향도 치료에 있어서 상당한 효과를 보인 體質 辨證에 따른 보다 깊은 연구와, '不治已病 治未病'에 따른 예방 관련 연구가 더 필요하리라 본다.

參 考 文 獻

1.이근후. 최신임상정신의학. 서울: 하나의학사. 1988: p138.216-28

2.전국한의과대학 심계 내과학 교실. 심계 내과학. 서울: 서원당. 1999: p481-5

3.서무규. 성인병 노인병학. 서울: 고려의학. 1992: p225-32

4.정인철, 김보경, 이상용. 치매환자 17예에 대한 임상적 고찰. 대전대 논문집.
1998:7(1):70-84

5.전상윤, 강화정, 홍석, 김윤완. 치매환자 43 예에 대한 유형별 임상고찰. 대한 한방 내과 학회지. 1999:20(2):47-66

6.홍석, 전상윤, 강화정, 김윤완. 치매환자 84例에 대한 유형별 임상고찰. 대한 한방 내과학회지. 2000:21(2):193-201

7.이영욱,강화정,조명래,진천식.홍석,김종석. 치매환자 32例에 대한 임상적 고찰. 대한 한방 내과학 회지.
1998:19(1):301-317

8.김보경. Alzheimer型 치매患者 2例에 對한 臨床的 考察. 동의 신경정신과 학회지.
1997:8(2):97-106

9.채종걸, 이상룡. 중의 잡지에 보고된 Alzheimer형 치매에 대한 고찰. 대전대 논문집. 2001:10(1):453-469

10.정인철. 中醫雜誌에 報告된 뇌혈관성치태에 對한 考察. 대전대 논문집.
2004:12(2):11-40

11.고병일, 고정수, 변기원, 손인철. 치매의 원인 및 치법에 대한 연구. 원광대 논문집.
2000:10(2):141-148

12.서부일, 이정훈, 우주영. 노인성 치매의 중의 임상 진단・치료에 대한 고찰. 제한 동의 학술원 논문집.
1999:4(1):657-668

13.최용덕, 이광규, 강형원, 유영수. 치매의 병리에 대한 동 서의학적 고찰. 동의 병리학회지. 1999:13(1):36-46

14.송미령, 윤창렬. 노인 치매의 치료에 관한 한의학적 연구. 대전대 논문집.
1997:6(1):37-75

15.안탁원, 홍석, 김희철. 뇌혈관성 치매에 대한 동 서의학적 고찰. 한의학 연구원.
1996:2(1):40-70

16.김영균, 권정남, 최난숙. 痴呆에 대한 文獻的 考察. 대한 한방 내과학회지.
1997:18(2):177-194

17.정인철, 이상룡. 치매에 대한 문헌적 고찰. 동의 신경정신과 학회지.
1996:7(1):77-94

18.김은선, 박치상, 박창국. 치매에 대한 문헌적 고찰. 경산대학교 제한동의학술원 논문\집.1998:3:357-382

19.서정렬, 손인길, 김강식. 痴呆에 대한 東西醫學의 文獻的 考察. 대한 침구과 학회지.
1997:14(1):226-238

20.전상윤,강화정,최진봉,조명래,진천식,홍석. 痴呆에 應用된 六味地黃湯加減方에 대한 文獻 的 考察. 대한 한방 내과 학회지.
1998:19(1):271-290

21.권순철. 치매의 病理와 鍼灸治療에 對한 文獻的 考察. 우석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2003

22.김봉찬, 금동호, 이명종. 치매의 최근 연구 동향.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1999:9(1):148-160

23.김이화,남상수,이철호,최도영,안병철,박동석,이윤호,최영태. 痴呆治療의 最近 硏究動向에 關한 考察. 대한 침구과 학회지.1997:14(2):115-126

24.나창수, 김정상, 채우석, 박석천. 치매에 관한 최근의 연구 동향. 대한 한방 내과 학회지.1998:19(1):291-300
25.황의완, 김종우, 이조희, 엄효진,이승기. 치매에 대한 한의학적 임상연구. 동의 신경정신과 학회지. 1996:7(1):1-13
26.김보균. Dementia of Alzheimer Type에 關한 韓醫學的 臨床硏究. 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1998
27.현경철, 김종우, 황의완. Vascular Dementia에 關한 韓醫學的 臨床硏究. 동의 신경정신과 학회지.
1999:10(1):147-157
28.조성훈, 김광호, 임재환, 김종우, 황의완. 치매 선별 검사로서의 시계 그리기 검사(CDT)에 관한 기초 연구. 동의 신경 정신과 학회지.
2001:12(2):185-192
29.김원찬, 김영석, 문상관, 고창남, 조기호, 배영섭, 이경섭, 박정미.中風患者의 血管性痴呆에 대한 臨床的 觀察. 대한 한방내과학회.
1998:19(2):50-59
30.박우순, 이태영, 김수용, 이광규, 육상원, 이창현, 이상룡. 신맥 조해의 전침 자극이 치매환자의 뇌파에 미치는 영향. 대한 침구학회.
2001:18(2):67-78
31.장수진. 전침 자극이 치매환자의 뇌파에 미치는 영향 : 정보전달 모드도해 분석법을 중심으로. 우석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2001
32.이창현, 김채헌, 이상룡, 육태한. 痴呆와 관련된 뇌영역에 투사되는 경혈(외관(SJ5),내관(Pe6),삼음교(SP6) 및 현종(GB9))의 탐색에 관한 신경해부학적 연구. 대한침구학회.
2003:20(6):168-181
33.서정렬, 윤여충, 박희수, 김경식, 이건목, 손인철.鍼灸刺戟이 痴呆와 關聯된 Melatonin 分 泌와 SOD 合成에 미치는 影響. 대한 침구과 학회지.
1999:16(1):403-426
34.고태준, 이상룡. 補益淸腦湯이 痴呆病態 모델에 미치는 影響. 동의 신경 정신과 학회지.
2001:12(1)
35.하수영, 정인철, 이상룡. 加減固本丸이 痴呆病態 모델에 미치는 影響. 동의 신경 정신과 학회지.2002:13(1)
36.이준영, 정인철, 이상룡. 天王補心丹이 痴呆病態 모델에 미치는 影響. 동의 신경 정신과 학회지.2002:13(2)
37.김수연. 半夏白朮天麻湯이 局所 腦虛血로 因한 痴마 병태 白鼠에 미치는 影響. 동신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2005
38.백지성. 牛黃淸心元이 NOS inhibitor에 의한 흰쥐의 學習 및 記憶障碍에 미치는 影響. 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1999
39.최병만. 益精地黃湯이 치매병태모델에 미치는 影響. 대전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2001
40.강정준. 補陽還五湯의 痴매 抑制 效果에 對한 硏究 = Study on the inhibitory effect of Boyanghwanotang on dementia. 동국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2000
41.임강현, 김현미, 서정철, 박선영, 오찬오, 오석홍, 김대근, 양재헌. 開心散 加味方과 구성약물의 아세틸콜린에스터레이즈 酵素活性에 대한 효과. 대한본초학회지.
2003:18(1):109-113
42.박종수. 태봉음이 콜린성 신경세포손상 백서의 학습 및 기억에 미치는 영향. 동의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2003
43.김보경. 蔘茸地黃湯이 腦組織의 酸化作用에 미치는 影響. 동의 신경 정신과 학회지.
1998:9(1):59-71
44.이상룡, 김보경. 安神淸腦湯이 알츠하이머 질환 병태 모델의 생화학적 변화 및 기억에 미치는 영향. 동의 병리 학회지.
2001:15(5):708-722

45.오영진, 김보경. 聰明湯과 香附子聰明湯의 추출물, 나노분말 제형을 이용한 치매에 관한 연구. 동의 신경정신과학회지.2006:17(1):79-105
46.하수영. 聰明湯과 山査聰明湯이 Alzheimer's Disease 病態 모델에 미치는 影響. 대전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2004
47.박지운. 聰明湯과 木槿皮聰明湯이 CT105와 βA로 유도된 Alzheimer's disease 病態 모델에 미치는 영향. 대전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2004
48.박정현. 星香正氣散이 NOS Inhibitor 投與에 의한 흰쥐의 學習 및 記憶障碍에 미치는 影響. 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1999
49.김근우. L-NAME으로 誘發된 학습·기억장애와 腦虛血 損傷에 關한 大造丸의 效果. 동국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1999
50.류재면. 香附子八物湯이 흰쥐의 방사형 迷路學習과 記憶에 미치는 影響. 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1999
51.김경화. 六味地黃湯이 局所腦虛血로 유발된 記憶力損傷白鼠에 미치는 影響. 동신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2005
52.윤상학, 정인철, 이상룡. 香附子가 痴呆病態 모델에 미치는 影響. 동의 신경 정신과 학회지.2003:14(1)
53.김현수, 정인철, 이상룡. 巴戟天이 痴呆病態 모델에 미치는 影響. 동의 신경 정신과 학회지.2003:14(1)
54.공희일. 柏子仁의 抗癡呆性 活性에 關한 硏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2001
55.유승엽. 토사자의 Acetylcholineesterase 저해 활성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학위 논문. 2002
56.박지운. 日黃蓮이 痴매에 미치는 實驗的 硏究. 대전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2002
57.이정희. 항치매 약효를 나타내는 천연물의 의약 화학적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위논문. 2001
58.박순권, 이홍재, 김현택, 황의완. 한약물의 치매치료에 관한 실험적 연구 조위승청탕과 형방지황탕의 노화동물에 대한 치매치료 효과연구. 동의 신경 정신과 학회지.
1998:9(2):19-35
59.엄현섭. 가미신선불노단이 ibotenic acid 손상에 의해 유도된 치매 백서의 학습 및 기억장애에 미치는 영향. 동의병리학회지.
2002:16(6):1151-1156
60.지규용. 치매음이 해마손상 백서의 기억기능 회복에 미치는 영향. 동의 병리학회지.
2002:16(6):1236-1242
61.김상호, 강형원, 유영수. 조구등이 ßAPP 과발현 인간 신경 아 세포암 에서의 항 치매효과에 관한 연구. 동의 병리학회지.
2002:16(5):960-966
62.이형철, 황상구, 이영찬, 김대근, 박영준. 김태은, 김명동, 전병훈. 한약재 물 추출물의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 활성 억제 검색. 동의 병리학회지. 2002:16(2):215-219
63.최재환, 김미영, 김현미, 최훈, 전훈, 김대근, 임종필, 임강현. 數 種 韓藥의 아세틸콜린에스터레이즈 酵素活性에 대한 효과. 대한 본초학회지.
2002:17(1):131-138
64.이재혁. 苦蔘의 Acetylcholinesterase 活性 抑制 成分. 우석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2004
65.장춘희. 紫花魚燈草 및 五倍子의 Acetylcholinesterase 活性 抑制 成分. 우석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2003
66.허진영. 補益藥이 神經細胞主의 成長・分化 및 細胞死滅 (Apoposis)에 미치는 影響 : 麥門冬이 細胞死滅에 미치는 影響.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 학위논문. 2001

67.안대광,이소연,윤덕현,신오철,박창구,박치상.CT99 발현 PC12 세포주 에서 가감고본환의 신경보호 및 항 치매 효과. 대한 방제학회지. 2005:13(1):35-48

68.황연규,이소연,윤덕현,신오철,박창국,박치상.CT99 발현 신경 세포주 에서 益氣安神湯의 신경보호 및 항 치매 효과. 대한 방제학회지. 2005:13(1):103-121

69.권형수, 박치상, 박창국. CT105로 유도된 신경 모세포종 세포주 에서 洗心湯의 항 치매 효과. 대한 한의학회지.2004:25(2):138-150

70.송호상, 박치상, 박창국.CT105로 유도된 인간신경아세종 세포주 에서 轉呆丹의 항 치매 효과. 대한 방제학회지.2003:11(2):95-110

71.임준모, 이민구, 윤종민, 이인, 문병순. 산화적 손상에 의한 Neuro 2A 치매모델에서 石菖浦遠志散의 방어효과. 대한한의학회지. 2005:26(1):161-173

72.강승준, 박치상, 박창국. CT105로 유도된 신경 모세종 세포주 에서 指迷湯의 항 치매 효과. 대한 한방 내과학회지. 2004:25(3):482-491

73.최혁, 김상호, 이대용, 안대종, 강형원, 류영수. pCT105로 유도된 치매모델에서 石菖浦水抽出液이 미치는 영향. 동의 신경정신과 학회지.2002:13(2):1-194

74.김명진. 補益藥이 神經細胞主의 成長・分化 및 細胞死滅 (Apoposis)에 미치는 影響 : 麥門冬이 細胞死滅에 미치는 影響. 대전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2004

75.최병만. 木槿皮가 CT105와 βA로 유도된 Alzheimer's Disease 病態 모델에 미치는 影響. 대전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2004

76.이희형. 녹용 성분 중 Acetylcholinesterase 저해제의 정제 및 구조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1999

77.김유진. 녹용의 Acetylcholinesterase 활성 저해 성분의 정제 및 구조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학위 논문. 2001

78.신승수, 이종수, 김성수. 저산소증으로 유발된 다발성경색치매의증 환자의 삼황사심탕을 이용한 증례. 2001:11(2):219-226

79.김보균, 김종우, 김현택, 정경천, 황의완.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에 대한 調胃升淸湯의 효능. 동의 신경 정신과 학회지. 2003:14(2)

80.정효창, 장하정, 성우용, 이승현, 손지형, 한승혜. 拱辰丹이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동의 신경 정신과 학회지.2004:15(2)

81.엄효진, 김종우, 박은혜, 김현택, 황의완. 초기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에 대한 健腦湯의 효능-12개월 임상 연구-.동의 신경 정신과 학회지.2005:16(1)

82.윤경선, 이지훈, 김재우 ,정승현, 신길조, 이원철. 혈관성 치매와 속발성 치매 치험 및 호전 3례.동의 신경 정신과 학회지. 2003:24(4)